



보도시점 2023. 5. 11.(목) 배포 시

배포 2023. 5. 11.(목)

충북 청주시에서 구제역 추가 발생

- 방역대 내 농가 전화예찰 중 구제역이 의심되어 정밀검사한 결과 최종 확진
- 발생농장 출입통제 및 소독 등 긴급 방역조치

농림축산식품부(장관 정황근, 이하 농식품부)는 충북 청주시 한우 농장 1호(68두 사육)에서 구제역이 추가 발생하였다고 밝혔다. 해당 농장은 최초 구제역 발생농장에서 1.9km 떨어진 곳으로,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전화 예찰 중 농장주가 침 흘림 등 구제역 의심 증상을 신고하여 정밀검사한 결과 구제역으로 확진되었다.

* 발생현황('23.5.11. 08시 기준) : 총 3건(모두 청주)

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사람·가축·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, 정밀검사, 소독,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며, 농장에서 사육 중인 모든 한우는 긴급행동지침(SOP) 등에 따라 살처분할 계획이다.

농식품부는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함께 신속한 살처분, 임상검사 및 예찰, 집중소독 등 구제역 추가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방역정책국 구제역방역과	책임자	과 장	김정주 (044-201-2531)
		담당자	사무관	조동호 (044-201-2532)

